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요한계시록 1:1, 9~11**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성임하셨다.(15~20분)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시는가?
- 주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가?(니파이후서 9:20 참조)

**니파이전서 14장 18~22절**을 읽고 학생들에게 니파이가 시현을 통해 보았던 사람을 묘사해 보게 한다. **니파이전서 14장 24~27절**을 읽고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는 후기에 관한 이 사도의 기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책이 기록되기 수세기 전에 이미 니파이에게 계시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음을 지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점은 계시록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에게 간증한다. **계시록 1장 1절**을 읽고 그것을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같은 구절과 비교해 본다. 조셉 스미스가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 토론한다. **요한계시록 1장 9~11절**을 읽는다. **니파이전서 14장 24~27절**을 다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니파이의 시현은 계시록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기록하라고 명하셨다. 니파이전서 14:25; 또한 요한계시록 1:11 참조)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 훌륭하게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축복사의 축복을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격려한다.

**요한계시록 1~22. 계시록의 주요 강조 사항은 후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10~15분)**

학생들에게 현미경과 확대경(또는 이 두 물건의 사진)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사물을 보여줄 때 현미경은 확대경과 어떻게 다른가?
- 아주 조그마한 것을 상세하게 보는 것의 이점은 무엇인가?
- 큰 그림을 보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이점을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말해준다.

부록에 있는 오버헤트 프로젝트 도표 "강조 사항"(288쪽)을 보여 주거나 칠판에 그것을 그린다. 도표를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고 (아담으로부터 요한의 시대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나타내는) 처음의 다섯 인이 열한 구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대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를 나타내는) 마지막 두 개의 인이 273개 구절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성도들을 준비시키려고 기록되었는가?

-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록의 중요성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가질 수 있도록 커다란 주의를

기울이셨다고 학생들에게 말해준다. 학생들이 계시록을 주의깊게 연구하도록 격려한다.

유의 사항: 이 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계시록의 좀 더 상세한 개관을 위해서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요한계시록(222~223쪽)을 참조한다.

**요한계시록 1:1~3.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인도하실 것이다.(15~20분)**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예언과 계시가 담긴 이 책에서 유익을 얻도록 도움이 될 몇 가지 원리를 포함시켰다. 학생들이 같은 원리를 배우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칠판에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길을 하나 그린다. 학생들에게 갈림길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러한 예가 인생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선택하는가?
-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어떤 사람도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교회 정사, 6:58)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인생에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도록 성신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궁극적으로 성신은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인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20쪽)에 있는 "계시" 항목의 처음 몇 문장을 읽게 한다.)
-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 계시로써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칠판에 답을 적고 학생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계시의 말씀을 읽는다
-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 계시의 말씀을 이해한다
- 계시의 말씀을 지키거나 순종한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같은 원리가 모든 계시에 적용이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경전에 있는 말씀과 축복사의 축복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과 영의 속삭임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음으로써 끝맺는다.

**"교회의 회원은 일상 생활의 모든 면과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해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교리와 성약 42:61 참조) '누가 나의 반려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Conference Report, 1980년 4월, 16쪽 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17쪽)